

예수 수난(성지)주일

기도서 275 면

제1독서 : 이 사 50, 4-7

제2독서 : 필립 2, 6-11

복 음 : 마 르 15, 1-39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③ 3201

□ 강론



성주간 유감(有感)

김 종 길 신부

오늘은 성지주일이며 성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성지가지를 들고 성지행렬을 하면서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 충성을 새롭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나약한 인간이 충성을 다하고 또 다시 배반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깨달으라고 그리스도께서 수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날입니다.

성주간은 일년중에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나는 1970년 부제 때에 우연히 신태인 본당에서 성주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는 성주간 체험을 본당에서 하도록 부제들에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성주간 체험을 본당에서 하게 된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게 했습니다. 나는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목요일, 본당 교우들은 물론 공소 교우들까지 다 모여 성당 안은 그야말로 대만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주의 만찬미사를 돕고 있었는데, 그 많은 눈동자에 몸들바를 몰랐었습니다.

주의 만찬미사가 끝나고, 부딪제대에서 교우들이 교대로 성체조배를 하며 저녁내내 울려 퍼지는 성가소리와 기도소리에 나는 설잠을 자면서도 마치 천국을 방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금요일,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의 기운이 땀도 새벽이 밝아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식욕이 왕성했던 나는 펍 힘겨웠지만 아침에 단식제를 지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고는, 고픈 배를 달래며 내일 있을 '부활찬송' 연습에 열을 올렸습니다. 부활 전야제는 더 많은 교우들로 나는 당황하여 '부활 찬송'을 어떻게 불렀는지조차 몰랐었습니다. 아마 제 나름대로 작곡하여 불렀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한 공동체가 주님의 식탁에 모여 앉아 빵을 나누며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전례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주간 예절에 적극 참여하시나.

나는 본당신부가 되어 성주간 때 쓸쓸함을 가깝 체험하게 됩니다. 교우들의 참석이 적고 성가연습이 부족할 때 과연 우리는 부활의 커다란 기쁨을 얼마나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함께 이 뜻깊은 빠스카 전례에 참석하여 생생한 부활의 신비를 나누며 살아갑시다. (부안천주교회 주임신부)



아이 추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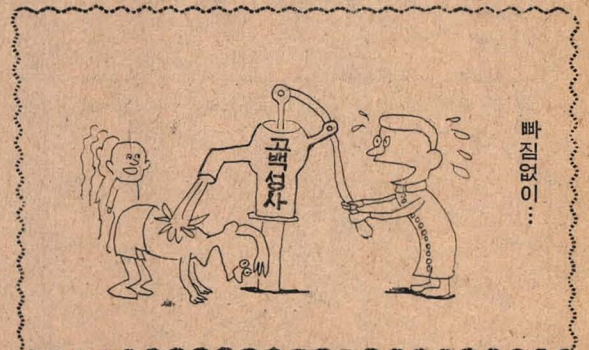
사람들은 모두 성격이 제각각이다. 또한 자기에게 처해있는 여건에 따라 원하는 바도 다 다르다. 차멀미에 시달리는 사람은 차창을 열어야 메스거리는 가슴이 진정된다. 예쁘게 머리를 가꾼 아가씨는 바람결에 흐트러지는게 싫다. 특히 잠기든 어린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엄마에게는 열려진 차창이 매우 싫다. 그래서 가끔은 서로가 열감을 찌푸리고 큰소리를 내기도 한다.

시간에 쫓기는 막차는 늦게까지 학교에서 책과 씨름하던 학생들과 일터에서 시달리던 직장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무거운 책가방과 도시락 보따리들이 일켜서 더더욱 불편하다. 까딱하면 큰소리가 오가기 쉽다. 버스 안내양이나 운전기사까지 모두가 피곤한 시간이기때 더욱 그렇다. 지친 몸이 파지가 되는 순간이다. 몰라보게 좋아졌다는게 언젠데, 여지껏 번두리 시민들은 그렇게 쫓기며 발을 굴러야 하는가 하는데에 생각이 미치면 차중까지 난다. 기사나 안내양들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중차를 시켜주면 하는 아쉬움과 바람이 크다. 가난한 서민과 번두리 내지는 시골에 사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 잠자 보따리같은 시내버스 안에서도 잠잔한 미소는 흐른다.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도 있다. 전쟁터만 같이 느껴지던 버스 안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이다. 만원 버스 안이 후덥지근해서 환기통을 여니 환기통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잠기가 들 지경이다. 그런데도 어느 고등학생이 조용히 웃으며 '아이 추워' 하고 만다. 어디에서 저런 인내심이 나오는가 해서 다시 보아진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들 모두 웃음을 만들어 내자. 조금씩 참으면서, 이러한 사회가 바로 몰라보게 좋아진 세상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성으로 성실하게 살자.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말이다.

숲 정 이 산책



성주간 전례의 의미

오늘은 예수님의 치욕적인 수난을 묵상하는 '수난(受難)주일'이다.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군중이 빨마가지를 흔들며 열광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성지(聖枝)주일'이라고도 한다.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성주간에서도 절정을 이루는 날은 '빠스카의 신비'를 가장 깊이 체험케 하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즉 '성삼일'이다.

이 '빠스카 신비'의 대표적인 사건은 이집트 노예생활에서의 해방과 예수님의 죽으심 및 부활이다. 우리는 전례에서 역사상의 사건들을 말과 행동의 예식으로 재현한다. 이는 곧 구원의 신비를 영적으로 현실화하는 예배행위인 것이다. 성지주일에 주의 입성을 환호하던 열광과 함께 십자가의 처단을 외쳐대던 인간의 연약한 배신을 션고, 성목요일엔 우리 죄를 치유케 하는 구원의 성유를 축성하는 미사와 주의 만찬미사에서 세족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고(獄苦)를 묵상케 하는 성체를 읊겨 모시는 예절을 거행하고, 성금요일엔 주의 수난과 죽으심을 새기는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의 장엄 경배 예절을 행한다. 또한 성토요일은 부활전야, 빠스카 밤을 경축하는 빛의 예식에서 어둠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구원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되풀이하는 예절 등이 그렇다.

우리는 구세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전례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하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과 봉사로 이웃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성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묵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옷을 갈아입고 빛(부활의 삶)에로 나아가야 한다.

봉재(卦齋)헌금에 뜻을 같이 하자

사순절 신앙의 핵심은 구제적인 현실 속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중심이 된다.

4월 2일 인성회에서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보속하는 단식제 권고의 날로 지냈다. 신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하고 이를 기워잡는 뜻으로 자발적인 단식제를 지키고 그 뜻을 준비했다가 오늘(4월 4일) 주일에 모두 헌금하게 된다. 이 헌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순절 공동 헌금으로 교회내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쓰이게 될 것이다.

또한 4월 9일 성금요일 재(齋)의 빛은 전 세계적 헌금이요, 우리의 영원한 성지 보존을 위한 합심이므로 다같이 예루살렘 성지복구비로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하여야 하겠다.

사순절 기간동안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친교와 사림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모두 기도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여 이 성주간과 부활절을 더욱 기쁘게 맞이 하자.

* 성서 강좌 *

1. 베델성서(제 3기)

성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며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화 하도록 돕는 강좌입니다.

모집기간 : 3월 29일~4월 30일까지

개강일시 : 5월 10일(월) 오후 7시30분(주1회 1년)

강사 : 범석규 신부님

수강료 : 월 1,000원(교재대금은 별도)

2. 베소라 성서(제 1기)

6개월 기간으로 신·구약성서 입문을 체계있고 보다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성서강좌입니다. 성서를 보다 깊게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집기간 : 3월 29일~5월 10일까지

개강일시 : 5월 11일(화) 오후 7시30분(주1회 6개월)

강사 : 김정원 신부님

수강료 : 월 1,000원(교재대금은 별도)

3. 매일 성서봉독 안내서 "오늘의 말씀" 보급 안내

분주한 생활속에서도 매일 10분씩 성서를 읽고 말씀이 삶에 도움이 되도록 편집된 이 책은 성서 본문을 소박하게나마 이해시켜 주고 있어 성서연구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교구에서 매달 발행되고 있는 안내서입니다.

1권당 700원(단체주문 할인) 주문처 : 진주 가톨릭센터



회 생(回生)

사순절 빠마디속 못짜옥에 천지창생	사십일에 골수는 숫는 피는 구세주여	당하신 고통 피로 화하고 웃음을 피네 부활하소서
눈물이 그 은혜 구세주여 부활에	흘러 흘러 어이하여 이몸에도 필요라던	바다이문들 다하오리 고통주소서 이몸 바치리
사순절 불철주야 알맹이는 이것이	묵상에서 뛰고 뛰어 어테 가고 주를 따른	언어진 인생 언어진 수확 죽정이 가득 보람이던가
주를 행한 이것으로 아서라, 또 다시	이내 정성 시련주는 죽정이는 뛰고 뛰어	부족하기에 시험이던가 불에 태우고 수확거두세.

<어느 공소회장>

전국 최초의 업자 소비자 공장도 구입 심부름 업소

정 주 전 자
 전 기
 가 백
 화
 점

정읍 터미널 앞 전화 7196

손 안 드 레 아(기영)

리틀포인트·완구·동양매
들·양초공예 수강합니다
보세 우산·양산 있습니다

데레사 수예점

조 윤 수
서 데 레 사

진주시 중앙동 1가48-1
(홍빈관 앞)

☎ 5081

□개업

"교우님들의 사업에 「節稅」로서 봉사코져 합니다

세무사 이환영 사무소
<가톨릭센터 221·222호실>
전화 3 6604

"교우님들에게는 언제나
지 세무에 대하여 무료 상
담하여 드립니다
세무사 이환영(아오스딩)



퇴재공소에 성모상 봉헌

지난 3월 24일 고산본당 산하 퇴재공소에서는 가정 성모상 제막식이 있었다.

74년전에 퇴재공소(호남 최초의 본당이었던 곳)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낸 이 강호(안드레아)씨는 평소 신앙의 꿈을 키워 준 퇴재공소에 가정 성모상을 봉헌하여 성대히 제막식을 갖었다.

이 강호씨는 성모상 이외에도 자신의 개인 소유인 대지와 임야 등을 교회에 기증한 일이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온 동네사람들이 한테 어울려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같이 나누며 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덩달한 막걸리 잔으로 축배를 들기도 했다.

지금은 퇴재공소를 떠나 있지만, 애향심과 옛 신앙의 보금자리를 아끼는 정성이 우리에게 좋은 표양을 남긴 것 같아 흐뭇하기만 하다.

□ 옥봉공소 성당 건립에 박차

군산 월명동 본당(주임 이 재후 신부)에서는 옥봉공소를 본당으로 건립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기금모으기 운동에 동분서주,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본당신부님과 전신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지를 계약했으나, 그 후가 문제, 신자들이 각 본당을 물며 약과 기름, 사과 등을 팔기도 하고, 이번에는 150주년 기념사진 앨범을 판매하고 있다. 또 한주간씩 행하고 있는 구역기도회 때는 최하 200원씩을 모아 한푼 두푼 정성을 모으고 있다는데 그들의 열의는 우리의 마음을 쩡하게 했다.

월명동 본당신자와 옥봉공소 신자들께 깊은 찬탄과 감사를 드리며 타본당 교형들도 함께 동참하는 성원이 가득 이어지길 빌고 싶다.

성전 건립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니까...

□ 치명자 산의 새벽기도

해마다 사순시기에 접어들면 각 본당에서는 특별한 기도와 전례로 이 기간을 뜻깊게 맞이한다.

전동본당에서는 금년에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기도를 실시, 매일 새벽 130여명의 신자들이 본당신부님과 함께 치명자 산을 오르내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특별기도를 바쳐 왔다.

그런데 금년 9일기도의 지향은 103위 복자들의 시성식과 누갈다 동정부부가 복자품에 올라 하루속히 하느님의 영광이 이 땅위에도 드러낼 것을 간구했다고 한다.

새벽의 찬 기온도 아랑곳없이 신앙의 열기로 녹여준 거룩한 시간이었다고, 신부님의 칭찬이 자자하다.

□ 전 종복·서 광석 신부님 유학 길에

전 종복(사도 요한)신부님과 서 광석(요셉) 신부님은 이번 4월 1일자 로마를 향해 출국했다.

로마 유학 코스를 밟기 위해 출국하신 두 분 신부님이 타국에서의 언어 장벽, 기호에 맞지 않는 음식 등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하게 면학에 충실하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하자.

요심이 (452) 김병오



의료효과의 선구자

신비 식품 토롱

(W. B. S.) 왜관수도원 제조

(토롱정, 엑기스, 찹쌀, 분말)

※ 토 롱 탕

- 남원영업소 : 동문사거리 - (50M) 병원 (전화 2479)
- 오수영업소 : 버스터미널 - (50M) 전주 (전화 457)

※ 시.읍(각 영업소 모집) 교우분 환영

◎ 전북총판-전주(구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⑤587

황 수 산 나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케이드내
전화 6429
송 베드로(관룡)
남 베로니카

□ 약용식물 알 로 에

신비로운 효능
전주시 효자동 거성아파트
다동 205호 전화 ⑨9700
이 지 수(안나)
유 종 소(베드루)

마 인 드 컨 트 를

전주 연수원 ② 4006

• 공개강좌 안내 : 매주 월요일

- ◎ 정신력 활용을 위한 고도의 정신사용 방법
- ◎ 건강·교육·습관·성격·E. S. P. 능력 등 전반적 조절

마인드 컨트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맞이합니다.

국제 마인드 컨트를 전주연수원

전주시 교사동 1가 22 전화 ② 4006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 4지구 교리교사 단합 체육대회: 일시-4월 5일 8시30분
주최-4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 대학생 섬서연구: 일시-4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5시30분, 장소-가톨릭 학생회관, 대상-대학생
-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일시-4월 5일 오후 7시, 장소-가톨릭 센터 3층
- 이 철원 신부님 2주기(4월 5일): 신부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중양)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박광문

- ※ 성경읽기: 이사-42장~52장, 요한-13장~18장
1. 예수 수난주일: 1년중 가장 의미있는 주간입니다
2. 부활영세자 면담: 성인남자와 학생전원 5일 오후5시
3. 부활반 영세자 종합교리: 영세자 전원 5일~7일까지 저녁미사 후
4. 부활영세식: 10일 오후 7시, 오후 6시까지 나오세요
5. 사도회 릴레회: 10일(토) 오후 2시
6. 주일학교 성지순례: 지난주 순정이 참조
7. 감사예물-문정님(10,000원)
□ 지난주 불헌금: 655,712원

(노송동)

전화 ③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 성주간 안내: 성목요일: 성유축성미사-오전 11시(중양성당), 만찬미사-오후 8시, 성체조배-조별로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오후 3시, 말씀의 전례-오후 8시(예루살렘 성지복구를 위한 헌금 있음)
성토요일: 부활성야미사-오후 8시(부활초는 학생회에서 구입 바람)
 - 판공성사 일정: 6일(화)-우아동, 7일(수)-분당 및 공소신자(혹시 빠진분들은 6일이나 7일에 꼭 보시기 바람)(성사시간-오전 10~11시, 오후 4시~5시, 저녁 7시30~9시)
 - 사도회·형제회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 민수기 전체
 - 심가정회: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 학생 예비자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남자 예비자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 젠 모임: 토요일 오후 5시
- 지난주 불헌금: 364,37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근
보좌 신부 안철영
사도 회장 양성열

- 사도회 릴레회의: 구역장·반장님 꼭 참석하세요
- 4월 5일 대청소 날: 뜻있는 분들의 헌수, 참석 바람
- 분당 염진 미역판매: 1박스당 35,00원 많은애용바람
- 19일부터 22일까지 반장님들 위한 M.B.W.교육
- 오늘은 성지주일: 금주-성주간행사에 참석 바람
- 사랑의 나눔(단식제): 불우한 이웃을 위한 헌금
- 성주간 금요일: 예루살렘 성지복구 위한 헌금 있음
- 가정방문: 계속함. 모두 준비를 해주시길

(복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예수부활 대축일: 다음주일(11)
 - 성주간(성삼일): 8·9·10일(목·금·토)-저녁 7시 30분, 전신자들 예전에 참여합니다(유인물 참조)
 - 피절: 4월 5일(월) 오전 8시30분~오후 6시, 센터 오물까지 신청 마감, 회비-1천원(중식 제공)
 - 모임: 6일 오후 2시-부녀회·반찬시사회·반회장
 - 선교분파 모임: 6일(화) 저녁미사 후
 - 축! 회갑(분당신부님): 4월 15(목)
축하미사-오후 1시, 축하식-오후 2시, 축하연-오후 3시,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로 영신의 아버지이신 신부님의 회갑을 뜻있고 즐거운 날이 되도록
 - 영세식: 4월 10일 오후 3시(유아세례 결합)
대부모와 같이 30분전에 와서 준비합니다
 - 첫 영세례: 공식미사
① 4월 2일 대제지킨 뉘을 오늘 특별헌금 해주세요,
② 9일 대소제-예루살렘 성지복구비 다음주일 헌금
- 지난주 불헌금: 388,480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 성삼일 전례에 적극 참여합니다(일정 별지참조)
 - 사도회 릴레회: 공식미사 후(오늘)
 - 영세식: 성토요일(방 예수부활) 미사중에 있음
 - 레지오단원 성지순례(5월 1일): 미리내 신청 바람
 - 사제양성후원: 신일바랍니다
 - 반장님 릴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판공성사 아직 안보신분: 4월 6~7일 오후 4시~6시
 - 꾸리아 모임: 다음주일 오후 2시
 - 돼지저금통에 관심을 가집시다
 - 할로 썬트 불현: 애령회 감사합니다
 -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박경환 ②박경복
- 지난주 불헌금: 227,931원 교무금: 246,5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③9567 사도 회장 김수걸

- 사도회 릴레회: 공식미사 후 유치원 교실
- 성주간 행사안내: 성목요일 밤 8시-성찬미사·세족예식, 성금요일 밤 8시-예수 수난일·수난경건·십자가의 길·십자가 경배예식, 성토요일 밤 8시-빛의 예식·불 축성, 초 준비-부활절 전야제미사
- 예비자 유아세례식: 4월 10일 10시-사무실에 접수
- 부활절 성가연습: 매일 밤 8시, 성가대원들 나오세요
-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철수
독서-①김영재 ②백시현, 기도-이강노
- 미사안내: 권말파·송절자·최윤희·김숙현·임안젤라·김혜레나 □ 지난주 불헌금: 459,200원

(전동)

전화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부 ③3222번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 사도회: 공식미사 후
 - 성주간동안 저녁미사: 오후 7시30분
성목요일: 성찬전에 발는 예절
① 세족예자 명단-이종두, 조일주, 조창훈, 주낙진, 오공권, 성일근, 이금용, 김남수, 김태원, 주원배, 장길용, 김완기, 장원호 ② 성시간 청체조배
성금요일-봉사부 대청소, 오후 3시-십자가의 길, 단식일 저녁십자가 경배
성토요일-불축성·성수축성, 영세식(대부·대모 꼭 참여 바람)
 - 젊은이 성지순례(4월 25일): 절두산, 미리내 접수중
 - 신축기금: 김병모·양현홍·김용욱(각 15만원), 이주철(6만원), 박중구·채수현(각 10만원), 손휘부(2만원), 채수원·최애기·최순남(각 1만원)
 -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이현재 ②김종연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이영태 ②백종홍
저녁미사: 해설-정양수, 독서-①김중수 ②이승호
- 지난주 불헌금: 511,08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 영세식과 유아세례식: 오늘 오후 2시
 - 사도회 릴레회: 오늘 저녁
 - 꾸리아 회합: 부활주일 오후 2시
 - 오늘부터 헌옷 수집, 부활 다음주에 갱생원 방문
 - 성주간 전례 예고: ① 성목요일(8일)-8시 "주의 단찬" 미사가 있음 ② 성금요일(9일)-오후 3시에 "주의 수난" ③ 성토요일(10일)-부활절전야 전례미사(저녁 8시)
 - 학생 종교음악 감상회: 17일(토) 오후 3시
주최-학생회 지도자
- 지난주 불헌금: 178,815원 교무금: 353,000원